

# 한국 상업건축 입면현상의 비서구적 근대성에 대한 연구\*

A Study on Non-western modernity of Surface Phenomena in Korean Commercial Architecture

Author 이상헌 Lee, Sang Hun / 정희원,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교수, 건축학박사

Abstract Korean commercial architecture is based on two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western modern architecture: grid frame structure and free facade. However, the original facade of the building disappears as numbers of commercial advertisements and signboards representing inner programs cover up the original facade. This is a unique feature of commercial architecture in Korea which I would call the surface phenomena of Korean commercial architecture. Common criticism on this type of building is that too many and too big signboards infringe upon the original pure facade of the architecture. Underlying assumption here is that signboards and commercial ads are inessential and decorative elements simply attached to the original pure facade of modern architecture. However, in this paper, I argue that commercial decorations is an essential aspect of Korean commercial architecture rather than an inessential decorative element attached later to the essential facade of architecture and that it reflects the historical specificity of cultural and architectural modernity of Korea. And thus, the surface phenomena of Korean commercial architecture should not be judged based upon the aesthetic paradigms of either western modern or postmodern architecture. Rather, it can be argued that surface phenomena of Korean commercial architecture is a reflection of a modernity beyond the paradigm of western modernism and postmodernism. The agenda of Korean commercial architecture is then not simply to restrict or to control signboards on the building facades with the intention to clean up facade of the building but rather to integrate the signs and commercial ads with the structure of architectural surface.

Keywords 한국 상업건축, 간판, 격자프레임구조, 표피, 비서구적 근대성  
Korean Commercial Architecture, Sign Board, Grid Frame Structure, Surface, Non western Modernity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소위 근린생활시설로 불리는 상업건축은 한국 도시가로의 일상적 경관을 형성하는 전형적 건축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3층에서 8층 규모에 최대 수십 개에 이르는 소규모 상업프로그램이 한 건물에 밀집되어있는 이 전형적 상업건축은 격자프레임(Grid Frame)구조와 자율입면이라는 서양근대건축의 형식을 갖는다. 근대적 격자프레임구조는 구조와 무관하게 융통성 있는 평면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생멸하는 소규모 상업시설을 밀집수용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구조다.<sup>1)</sup> 한편, 상업건축의 입면은 프레임 구조와 분리된 독립적 외피로서 근대건축의 자율적 입면을 구성하지만, 건축의 표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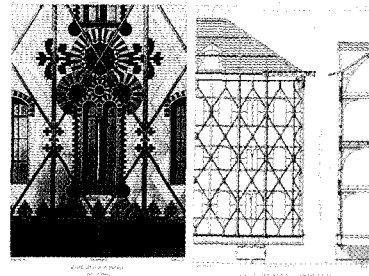
대부분이 내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많은 간판과 상업광고로 둘러싸여 원래의 건축입면은 소멸되고 상업 간판이 표면을 지배한다. 그래서 자율적 입면은 상업적 간판으로 구성된 문자와 이미지로 증발해버리고 만다. 이것은 한국 도시상업건축의 독특한 표면 현상이다.<sup>2)</sup><그림 1>

- 1) 서양에서 자본주의적 대도시화 과정에서 소규모 상업의 집적화는 아케이드나 몰, 백화점의 형태로 나타났다. 고층프레임 구조 안에 가로상점의 수직적 적층이라는 독특한 건축유형은 한국(혹은 홍콩, 일본과 같은 아시아 국가)상업건축의 특징이다. 한국 상업건축은 이런 면에서 격자 프레임구조의 장점을 상업적으로 가장 잘 활용하는 건축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 2) 이러한 상업건축 유형이 출현하게 된 배경에는 도시 내 상업시설이 주상복합의 형식이 아니라 주거와 분리 배치되는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전통, 주거지에 다양한 상업시설을 허용하는 독특한 용도구역제도, 개발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위해 고밀화, 대형화를 추구하는 민간자본에 의존한 도시개발기법과 소자본 자영업의 비중이 큰 한국 경제의 구조적 특징이 있다. 이러한 근생건축의 발생 배경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문에서 다룰 예정이며 본 논문에서는 입면의 표피현상에 집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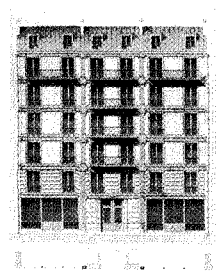
\* 이 논문은 2009학년도 건국대학교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그림 1> 한국 도시상업건축, 분당



<그림 2> 솔리니에, 초콜릿 공장, 1878



<그림 3> 파리의 철 프레임 아파트, 1876

이러한 한국 상업건축의 표면현상은 흔히 건축의 순수 형태와 도시경관을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받는다. 과도한 광고의 난립은 광고의 목적인 사회적 소통의 효용성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원래 건축의 순수 형태를 오염시킨다는 것이다. 이 같은 비판의 이면에는 서구 근대건축의 미적규범에 대한 이상적 믿음이 깔려있다. 즉, 상업건축의 표면에 부착된 광고는 건축의 본질적 입면과는 무관한 것으로, 근대건축이 성취한 순수입면의 미적 질서를 해친다는 것이다. 그래서 상업 간판을 제한하고 정비하여 건축의 본질적 입면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3)</sup>

그러나 상업광고는 건축의 입면과 무관한 장식적 요소이며 상업건축 간판의 이면에 존재하는 입면은 본질적이거나 순수한 미적규범을 표상하는가? 근대건축의 미적규범을 어떻게 정의하든, 실상 한국 상업건축의 입면에서 공간의 복잡성이나 구축의 논리, 혹은 재료의 정직성을 표상하는 서구근대건축의 순수입면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또 서구근대건축의 미학이 한국에서 하나의 양식적 규범으로 이론화되거나 제도화된 적도 없다. 그렇다면 한국 상업건축의 입면현상은 서구 근대건축과는 다른 한국의 상업적 근대건축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즉, 한국 상업건축의 표피현상은 건축의 본질적 입면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서구 근대건축의 미적규범과는 다른 한국적 근대성을 반영하는 건축의 본질적 요소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상업건축의 입면 현상을 서구 근대와 탈근대의 입면 이론과 비교하여 그 성격을 밝히고 건축적으로 이론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논문은 먼저 서구근대건축에서 자율적 표피와 순수입면, 그리고 상업적 표피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한국 상업건축 입면의 표피현상과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 상업건축 입면현상에 나타나는

근대성의 특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또, 최근 제시되고 있는 서구 탈 근대적 표면이론과 비교하여 한국 상업건축의 표면현상이 갖는 한국적(비서구적)근대성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으로써 한국 상업건축의 표면현상을 이론적 관점에서 규명하고 이를 통해 상업건축에서 입면 디자인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 2. 근대건축의 자율적 표피와 순수입면

### 2.1. 프레임구조와 자율적 표피

근대적 고층 상업건축이 철과 철근 콘크리트 같은 근대적 재료를 이용한 격자프레임 구조의 발전과 함께 등장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격자프레임 구조가 익명의 상업 및 업무공간을 위한 효율적 구조시스템으로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은 19세기 말 미국의 시카고 스쿨(Chicago School)을 통해서다. 물론 철과 같은 근대적 재료를 이용한 프레임구조가 건축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세기 후반 유럽에서였지만 당시 유럽 건축가들의 주 관심은 철 프레임의 구축적 질서를 입면의 건축양식으로 표현하는데 있었다.<sup>4)</sup> 이것은 구조와 입면의 장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다시 말해서 구축의 원리가 입면의 장식화된 형태규범으로 드러나는 서양건축의 오랜 전통을 반영한다.<sup>5)</sup><그림 2, 3> 그래서 철 프레임 구조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19세기는 격자 프레임구조와 같은 독립된 구조적, 건축적 시스템의 가능성을 추구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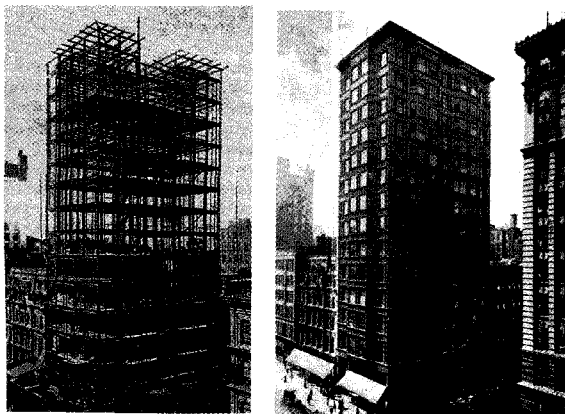
유럽의 구조합리주의(Structural Rationalist) 건축가들이 구조 프레임을 입면의 양식으로 표현하는데 치중했다면 르 바롱 저니(Le Baron Jenney), 반함(Burnham)과

3) 간판정비를 위한 보고서는 대개 광고크기와 수를 줄여 건축입면의 오염도를 줄이고 광고 디자인의 수준을 높이는데 집중한다.(서울시 육외광고물 관리 기본방안 연구보고서 2002)

4) 1868년 구조 합리주의자인 비올레 르 뉘은 철제프레임을 이용한 건축(상가주택, 시장)을 제안한 바 있고, 1870년경에는 Pan der fer 라는 철 프레임구조가 프랑스 파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5) 구조의 장식적 표현을 통해 입면장식은 구조체의 질서를 강화하거나 약화하는 기능을 했다. 그래서 전통적 건축에서 장식은 텍토닉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같은 시카고의 건축가/기술자들은 건축에 대한 반 미학적, 실용주의적 태도를 바탕으로 프레임을 하나의 독립적 구조 시스템으로 보고 격자구조인 “시카고 프레임”을 고안했다. 그리고 이러한 격자 프레임 구조를 고층 상업/업무건축의 유형으로 발전시켰다. 상업건축은 익명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단일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건축과는 달리 공간사용의 융통성이 있어야 했고 이러한 목적에 격자프레임 구조는 가장 실용적 형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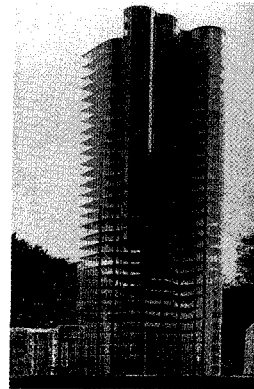
격자프레임 구조자체가 하나의 독립적 요소가 되면서 전통적으로 하나의 유기체처럼 결합되었던 건축의 구조와 입면, 구조와 공간이 서로 분리 되었다. 벽의 구조적 역할이 없어지면서 벽은 순수한 구성적 요소로 독립되었고, 프레임구조와 독자적으로 공간과 매스를 미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렸다. 이러한 변화는 건축적으로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었지만, 시카고학파는 프레임을 단순한 기계적 요소로 보았기 때문에 격자 프레임 구조가 가지고 있었던 건축적 가능성을 발전시키지는 못했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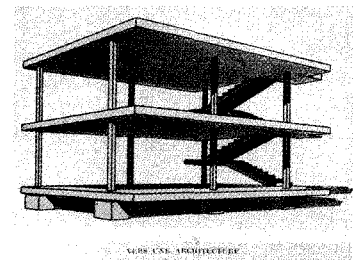
<그림 4> 반함, Reliance building 1894-95

전후 근대건축의 이론가인 콜린 로우에(Colin Rowe)는 이러한 문제에 주목하여 부동산 자본과 상업적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시카고 프레임”(Chicago Frame)과 건축적인 “아이디어로서의 프레임”(Frame as Idea)을 구분했다.<sup>6)</sup> 그에 의하면 “아이디어로서의 프레임”의 건축적 가능성을 발전시킨 것은 유럽의 모더니즘건축에서다. 서양 고전건축이 기둥의 오더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미적 규범을 발전시킨 것과 같이 유럽의 근대건축은 프레임을 하나의 미학적 요소로 코드화했다는 것이다.<sup>7)</sup> 예를 들어 미스(Mies)는 유리 마천루 프로젝트(1922년)에서 철골조

프레임을 투명한 유리외피로 둘러쌌으므로 프레임 자체를 미학적으로 표상하는 동시에 건축의 매스와 볼륨을 표현하고자 했다.<그림 5> 르 꼬르뷔제(Le Corbusier)의 돔이노(Domino)도 “아이디어로서의 프레임”이 갖는 건축적 가능성을 제안한 모델로서 그리드 프레임은 표면의 미학과 분리된 독립된 시스템이 되었고, 벽은 구조체와 무관하게 구축되는 근대의 자율적 외피가 되었다.<sup>8)</sup> <그림 6>



<그림 5> 미스, Glass Tower, 1922



<그림 6> 르 꼬르뷔제, 돔이노, 1914

## 2.2. 규율된 벽으로서 근대건축의 순수입면

프레임 구조와 같은 근대적 구조술이 발전하면서 입면에서 구축의 원리와 장식적 입면은 점차 분리되었다.<sup>9)</sup> 입면에서 축조성이 해체되고 건축표피의 평면성이 강조되면서 입면은 점차 회화적 구성에 의존하게 되었는데,<sup>10)</sup> 이러한 평활면은 20세기 초 아돌프 로스(A. Loos)에 의해 논쟁적으로 제안된 “장식이 완전히 제거된 백색의 입면”으로 발전했고, 백색의 평활입면은 20세기 근대건축의 상징적 요소가 되었다.<sup>11)</sup> <그림 7>

특히 격자프레임 구조의 발전과 함께 구조와 완전히 분리된 자율적 외피개념이 등장하면서 입면의 평면화와 추상화는 가속화되었다. 20세 초 근대아방가르드 건축가들은 외피에서 표현성을 완전히 제거하고 입면에서 내부의 기능과 구조, 공간을 직접 표상하는 추상적 장식을 발전시켰는데 예를 들어 데 스틸(De Stijl)과 요소주의(Elementalism)의 창시자 반 두스부르크(Van Doesburg)는 장식적 입면의 정면성을 부정하고 색 면을 활용하여 4차원 시공간의 모든 방면에서 조형성을 표현하는 새로

8) Coline Rowe, Chicago Frame, p.107

9) 전통적으로 서양 건축의 입면은 축조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서 건축입면의 장식은 건축의 구축적 특성을 강화하고 영속성의 효과를 표상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10) 쟬퍼의 피복론과 오토 바그너와 세제션의 건축은 이러한 경향을 대변한다. H. Mallgrave “Introduction” in Otto Wagner, Modern Architecture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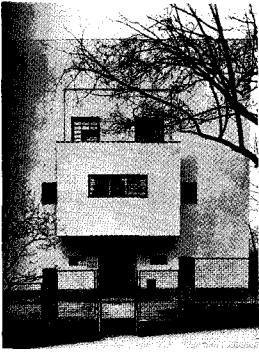
11) 로스는 근대사회에서 순수한 백색벽의 도시를 주장했다. Ornament and Crime(1908) in the Architecture of Adolf Loos, p.100

6) Colin Rowe, “Chicago Frame” in The Mathematics of the Ideal Villas and other Essays, MIT P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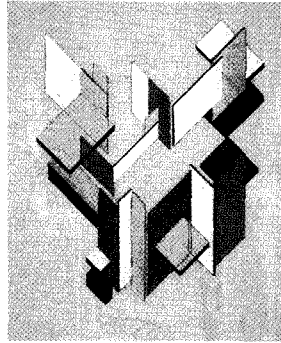
7) Colin Rowe, 상계서

나아가 Peggy Deamer는 로우에의 주장을 이어받아 현대건축에서 격자구조(Scaffolding)는 일종의 선형적 표면으로서 현대인의 정신적 상태(패러다임)를 반영하는 형태라고 주장한다. Peggy Deamer “Structuring Surface” in Resurfacing Modernism, p.98

은 추상적 형태미학을 탐구했으며 이것을 구조와 공간 자체의 순수한 미학적 표현으로 간주했다.<sup>12)</sup><그림 8>



<그림 7> 로스, 몰러 주택, 1927-28



<그림 8> 반 뒤스부르크, 반구형, 1923

르 꼬르뷔제는 외피의 기능은 표현성이 아니라 “내부 공간, 기능과 갖는 관계방식”에 있으며 내 외부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근대건축 외피의 평면성이 갖는 공간적 함축을 활용하여 유동적 공간효과를 만들어 내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또 근대건축의 역사이론가인 기디온(S. Giedion)은 근대건축의 백색 평활면을 장식물 제거한 순수한 벽, 구조와 공간의 정직한 노출과 표현이라고 정의하며, 그 동안 과도한 장식으로 억압되어 있던 건축의 원초적 표면이 회복된 것이라고 주장했다.<sup>13)</sup>

그러나 위글리(M. Wigley)가 밝혔듯이 근대건축의 표면이 공간과 기능, 구조의 정직한 노출, 즉 순수입면이라는 것은 허구적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 근대건축은 기디온의 주장처럼 장식을 제거하고 순수한 형태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요컨대 부르주아 합리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장식 체계를 제안한 것이다.<sup>14)</sup> 위글리에 의하면 19세기 후반 건축표면이 구조와 분리되면서 건축의 표면장식은 하나의 패션으로 간주되었다. 당시 패션의 역할은 근대사회에서 산업화에 대한 개인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덮기 위한 하나의 심리적 방어 메커니즘이었다. 패션에 의한 표면의 장식은, 말하자면 근대 자본주의사회에서 일상화된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는 일종의 신경저항의 형식이다. 근대건축은 이러한 장식적 패션의 일시성에 대항하여 순수한 입면을 회복함으로써 근대사회에서 건축의 본질적이고 영속적 가치를 재건하려는 것이었다. 근대건축의 순수성과 초시간적 가치의 추구는 근대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불안과 공포를 극복하고자 하는 심리적 방어 메커니즘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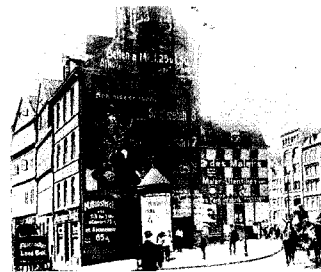
근대 건축가들은 근대건축의 순수표면은 구조와 기능

에서 비롯된 본질적이고 순수한 것이라고 믿었지만 구조에 새로운 표면을 입힌다는 점에서 근대건축의 순수입면도 장식적 표피에 의한 보상적 저항이라는 메커니즘을 벗어나지 못한다. 즉, 건축의 근대화의 최초 행위는 건축이 입고 있던 패션으로서의 옷을 벗기는 일이고 그 다음 노출된 구조를 백색 평활면이라는 새로운 장식적 표피로 규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근대건축의 백색 면은 위글리가 주장하는 일종의 “장식제거의 퍼포먼스”이며 새로운 미학적 패션의 추구인 셈이다.<sup>1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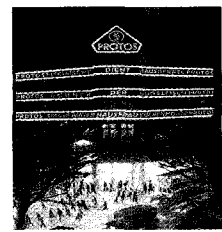
요컨대 근대건축의 순수 입면은 서구 근대사회에서 패션의 일시성에 저항하고 기계화의 공포에 대응하며, 산업화에 의한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전통적 장식을 해체하고 추상적 미학으로 규율된 새로운 장식인 셈이다.<sup>16)</sup>

### 2.3. 근대건축의 순수입면과 상업광고

근대건축의 순수입면은 전통적 장식의 상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합리화된 미학적 장식이었지만, 동시에 역사와 기억의 상실, 그리고 몰 개성화를 가져왔다.<sup>17)</sup> 따라서 장식이 제거된 순수입면의 “비인간화된 텍토닉”(Dehumanized tectonic)은 표면을 새롭게 재창조하고자하는 건축적 충동에 끊임없이 노출되었다.<sup>18)</sup> 이 욕망의 빈자리를 채운 것은 바로 근대 대중소비사회의 새로운 소동 매체인 상업 광고였다. 이런 점에서 1920년대 근대건축의 백색의 순수입면과 함께 표면의 상업 광고가 확산되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sup>19)</sup> 19세기말 상업주의와 함께 시작된 광고는 20세기 초 근대산업사회의 주 요소로 등장했다. 그리고 대중소비문화의 발전과 함께 도시의 이미지를 지배하기 시작했다.<그림 9> 1920년대 광고의 주된



<그림 9> Building signs, Germany, 20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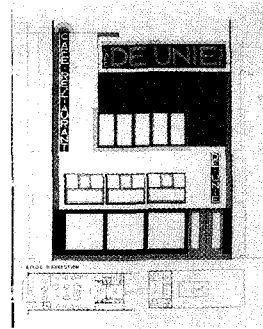
<그림 10> The Protos Corner, Kudam Berlin, 1927

15) Mark Wigley, White out: Fashioning the Modern, 1994 참조  
 16) 근대건축에서 표면의 규율(Disciplining surface)에 대한 개념은 Wigley 상에서 참조  
 17) 크라카우어는 “베를린 거리”에서 역사와 기억의 상실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서술은 Ward, 상계서, p.71 참조  
 18) 크라카우어, 블로흐, 벤야민, 아도르노 등 당시 독일의 문화 이론가들은 모두 신즉물주의의 순수입면에 대해 비판했다. 유럽 근대건축의 파사드 청소는 오히려 입면에서 새로운 공간성과 자유를 재발견하게 했다. Ward J. Ward, Weimar Surfaces, pp.81-91 참조  
 19) 이에 관한 연구서는 J. Ward, Weimar Surfa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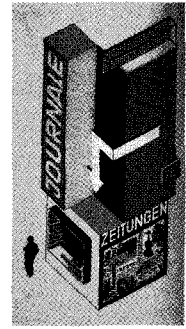
12) 데 스틸과 반 뒤스부르크는 장식(decoration)보다 형태(Form)을 우위에 두고 근대적 도시건축의 새로운 텍토닉 언어를 구축하려 했다.  
 13) S. Giedion, Space Time and Architecture, p.458  
 14) Mark Wigley, White out: Fashioning the Modern in Architecture in Fashion

장소는 대도시의 공공영역, 특히 거리였다. 텍스트에서 해방된 문자광고는 거리에서 대중문화의 힘을 표현하는 것이었고 대중이 개인적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소통의 매체였다.<sup>20)</sup> 와드(Ward)는 당시 광고(패션)의 역할에 대한 믿음은 창조성의 공공공간을 양육하는 능력에서 나온다고 기술한다. “이것(광고/패션)은 비록 대중문화의 타율성을 통해 작동하지만, 모호하면서도 효과적인 인간자율성의 벡터이다.”<sup>21)</sup> 요컨대 1920년대 대중소비사회와 대중문화, 대중매체의 등장과 함께 상업 광고는 합리화되고 순수화된 근대건축의 표면에서 전통적 장식이 담당했던 상징과 신화의 영역을 대체했던 것이다. 그 결과 대도시에서 근대건축의 순수입면은 광고와 상업적 사인들로 재 장식되었다.<그림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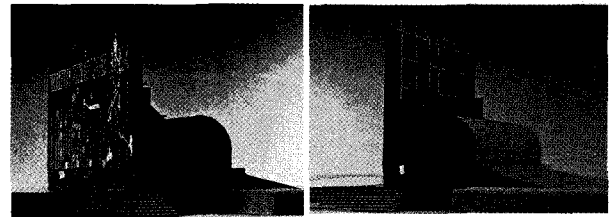
20세기 초반 해도 유럽의 대도시는 도시보존의 논리와 질서유지의 차원에서 광고를 규제했다.<sup>22)</sup> 그러나 1920-30년대 근대 아방가르드 예술가와 건축가들은 광고를 새로운 근대적 시각 환경의 일부로 보기 시작했다. 그들은 전기광고가 내뿜는 빛의 건축적 텍토닉을 큐비즘(Cubism)이나 다다(Dada)와 같은 근대 아방가르드 미술과 동일한 기술적, 지각적 과정을 인식했다.<sup>23)</sup> 즉, 전기광고의 계속되는 쇼크는 근대 대도시거리를 확보하는 사람들의 경험을 파편화하고 무관심하고 산만한 도시대중의 감각의 방어막을 뚫는 것을 전략으로 삼았다. 그들은 이러한 대중문화의 현상을 근대미학과 통합하여 광고로 대변되는 도시의 스펙터클 속에서 새로운 지각적 질서를 재조직하려고 했다.<sup>24)</sup> 예를 들어 데 스틸과 바우하우스(Bauhaus)의 예술가, 건축가들도 광고를 긍정하고 이러



<그림 11> Oud, cafe de Unie, Rotterdam, 1924



<그림 12> H. Bayer, design for Newspaper kiosk, 1924



<그림 13> 벤투리, National Football Hall of fame, 1967

한 상업화된 건축의 현상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려고 시도했다.<그림 11, 12> 1920년대 상업적 근대건축에서 나타난 근대의 새로운 장식-패션, 문자광고, 내은사인, 상품진열 등-은 와드가 지적한 대로 “신즉물주의(Neue Sachlichkeit)가 전통적 건축의 입면을 깨끗이 청소한 이후 나중에 부가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건축의 구축에서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sup>25)</sup>

1960년대 건축가 벤투리(R. Venturi)는 근대건축의 순수입면과 추상미학을 비판하고 사인(Sign)을 통한 직접적인 소통을 지향하는 건축으로서 장식된 오두막(Decorated Shed)을 제안한 바 있다.<그림 13> 그러나 근대건축의 순수입면과 벤투리가 주장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장식적 입면의 구분은 사실상 명확하지 않다. 앞에서 서술했듯이 1920년대 유럽의 상업적 근대건축은 이미 광고와 같은 탈 근대적 장식요소를 공유하고 있었다. 벤투리가 주장한 탈 근대건축의 장식적 입면은 이미 근대건축의 현상 안에 있는 셈이다. 차이가 있다면 벤투리의 포스트모더니즘은 건물과 사인의 이분법을 주장하지만, 바이마르(Weimar)의 상업적 근대건축의 표면은 장식된 오두막의 이분법을 뛰어넘는 일종의 통합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다. 와드는 바이마르 상업건축에서 보이는 “아방가르드의 비전과 대중문화가 결합된 모순적 성취는 깨끗이 청소된 입면에 덧붙여진 장식이 아니라 그것이 발생한 사회 속에서 온전히 진정성을 갖는, 기능적인 것이며 구조와 기능의 정직한 표현이고, 덧붙여진 것을 제거

20) Ward, 상계서, p.98

21) Ward, 상계서, p.92

22) 이에 관해선 Ward, 상계서, p.134 참조

23) 큐비즘, 다다, 바우하우스에서 예술형태는 광고처럼 툰과 형태, 색의 급진적 대비를 보이며 세심하게 조각된 재료와 움직임의 몽타주를 이용한다. 1920년대 독일의 옥외광고는 문자형태의 표면장식으로 몽타주의 자극기술과 시뮬레이션 기술을 통해 무관심하고 산만한 도시대중의 감각의 방어막을 뚫는 것을 전략으로 삼았다. 전기광고의 계속되는 쇼크는 근대 대도시거리를 확보하는 사람들의 경험을 파편화하고 도시의 환영의 기술미학을 보상적 형태로 드러낸다. 그 목적은 일종의 마취처럼 환경자극의 조절에 의해 공간각의 시스템을 조절하는 것이다. 1920년대 등장한 전기광고는 근대적 대중문화매체인 영화의 움직임에 익숙해진 대중의 지각능력에 맞춘 것이다.(Ward, pp.123-4, p.136)

24) 수평선과 곡선을 강조하는 멘델존의 표현주의는 도시의 지각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건축으로 평가된다.(Ward, 상계서, pp.111-2, p.119) 바우하우스도 몽타주 효과를 활용한 광고에 관심을 갖고 장식적 예술과 구조적 예술의 경계를 없앴다. 모호로 나치의 Dynamic of city는 몽타주와 충격효과로 대변되는 도시의 지각적 과정을 기록하고자 했다. 한편, 벤야민은 이러한 광고의 지각 현상을 비판적으로 보고 바이마르의 표면문화에서 텍스트가 책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애통해 했지만 아우라에 근거한 전통적 예술에 대한 동경보다는 이를 통한 새로운 예술적 형태에 관심을 가졌다. 벤야민은 특히 영화와 광고의 지각적 힘의 공통성을 주목하고 충격효과를 통한 아우라의 파괴를 찬양했다.(이에 관해서는 W. Benjamin, Work of art in the Age of Mechanical reproduction, 1936 참조)

25) Ward, Weimar surface, p.51

한 후 본질적인 내적생명체에 이른 것”이라고 정의한다.<sup>26)</sup> 그는 바이마르 모더니즘은 이러한 표면과 구조의 유기적 공존을 일시적이거나 성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3. 한국 상업건축의 입면현상과 서구 (탈) 근대 상업건축 입면의 비교

#### 3.1. 한국 상업건축의 입면과 장식된 오두막

##### (1) 간판과 건축의 분리

한국 상업건축의 표피현상은 1920-30년대 유럽의 상업적 모더니즘의 전통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상업건축에서 나타나는 간판의 표피현상을 단순히 모더니즘 건축의 순수성을 오염시킨 장식적 표피로 규정할 수는 없다. 서구 근대건축의 표피도 본질적으로 장식적 광고와 구조가 공존하는 장소였음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한국의 상업건축에는 1920년대 유럽의 상업적 모더니즘에서와 같은 광고와 입면의 통합을 위한 아방가르드적 예술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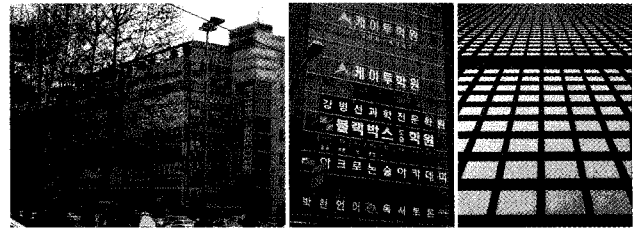
##### (2) 입면의 총체성의 부재

건물과 분리된 사인보드가 표피에 단순히 부착된다는 점에서 보면 한국 상업건축의 입면은 벤틀리의 말하는 장식된 헛간에 더 가깝다. 그러나 한국 상업건축은 벤틀리의 장식된 헛간과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 벤틀리의 간판 건축은 자기 완결적 의미를 갖는 기호학적 파사드(Semiotic facade)로서 파사드를 통해 건축의 성격(Character)을 드러내는 서구건축의 재현의 미학적 전통을 유지한다.<sup>27)</sup> 다시 말하면 벤틀리의 사인보드 건축은 “상징적 오브제로서 건축”의 미학적 전통을 유지한다. 반면, 한국 상업건축은 하나의 자기 완결적 오브제라기보다는 여러 개의 작은 프로그램이 익명적 그리드 프레임 안에 밀집되어 있는 복합체로서 입면은 내부의 소규모 프로그램들을 표현하는 수많은 시각적 기호들의 집합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건축의 파사드가 갖는 사인으로서의 총체성은 소멸된다. 서구건축의 입면이 갖는 성격과 재현의 미학적 전통은 한국의 상업건축이 보여주는 극단적 혼합과 잡종성을 담보하지 못한다.<sup>28)</sup> <그림 14>

26) Ward, 상계서, p.54

27) 마이클 헤이즈는 벤틀리의 건축을 Semiotic facade로 규정하고, 오브제가 붕괴된 현대도시에서의 시각의 메커니즘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M. Hays, “Prologomenon for a Study Linking the Advanced Architecture of the Present to that of the 1970s through Ideologies of Midea, the Experience of City in Transition, and the ongoing effects of Reification.”, Perspecta, 32

28) 서양 복합상업시설의 경우 광고의 다양성이 내부가로에서 표현되지 도시외부로 반영되지 않는다. 또, 한국고층 상업건축의 현상은 콜하스의 맨해튼에 대한 분석과도 비교될 수 있다. 콜하스는 맨해튼의 고층건축을 외부는 단순한 형태를 가지지만 내부의 프로그램은 역동적인 것으로 분석했다.(Koolhaas, Delirious New York) 그러나 한국의 고층상업건축은 내부와 외부가 모두 역동적이다.



<그림 14> 상업건축, 분당구 구미동, 2000  
간판으로 덮힌  
상업건축의 파사드

<그림 15>  
상업건축, 서울  
강남구 대치동.  
커튼월 위의 간판

<그림 16> 미스,  
Dominion center,  
1968. 커튼월의  
모듈과 패턴화된  
입면

##### (3) 건축과 사인의 간격

벤틀리의 사인보드 건축과 한국의 상업건축을 구별 짓는 또 하나의 요소는 건축과 사인사이의 간격이다. 고전 건축에서 근대건축, 탈 근대건축에 이르기까지 서양건축의 입면에 대한 논의는 모두 건물과 사인의 일치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한 건물 안에 수많은 프로그램이 발생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한국 상업건축의 경우 건축과 사인사이에는 시간적, 공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따라서 입면을 지배하는 수많은 간판과 상업광고는 그 자체가 하나의 매체로서 다양한 시각적 정보와 이미지를 제공하는 임의적 사인의 연결망으로 구성된 독립된 커로 존재한다. 여기서는 자기 완결적 오브제로서 입면의 총체성은 사라지고 다층적 의미의 해독이 가능한 텍스트의 즐거움(Pleasure of Text)이 존재한다.<sup>29)</sup>

#### 3.2. 한국 상업건축의 입면과 커튼 월

##### (1) 오브제적 형태의 소멸

자기완결성을 갖는 오브제적 형태의 소멸이라는 점에서 보면 한국 상업건축의 입면현상은 라인홀트 마틴(Reinhold Martin)이 분석한 근대건축의 커튼월 입면과 유사하다. 마틴은 1950년대 미국에서 발달된 커튼월을 “건축 오브제가 모든 스케일에서 읽힐 수 있는 모듈화된 패턴의 장(Field)으로 붕괴된 것”으로 규정하고, “그 패턴화된 모듈의 폭포는 하나의 예술적 오브제로 감상되기보다는 스쳐지나가며 보는 매체”라고 정의한다.<sup>30)</sup> 여기서 건축입면은 소통을 위한 언어로서의 상징성을 상실하고 하나의 매체로서 정보의 흐름 자체가 되었다고 그는 분석한다.<sup>31)</sup><그림 15, 16>

##### (2) 표상과 상징성의 해체

마틴은 커튼월의 입면이 미국 전 후 사회의 조직 복합체(Organizational Complex)를 표상한다고 본다. 이 조직 복합체는 전 후 미국사회의 파편화된 개인(소비주체)을 조직하는 원리이다. 그리고 이것은 회사조직을 넘어 도시로, 그리고 전 세계 개인을 연결하는 (거대한 텔레비전

29) Barthes, The pleasure of the text, p.31

30) R. Martin, The organizational complex, p.7

31) 상계서, p.6

과 같은) 네트워크를 형성한다.<sup>32)</sup> 근대건축의 순수입면이 근대적 주체를 대상으로 한 규율(Disciplined)사회의 반영이라면 커튼월의 끝없이 패턴화된 입면은 전후 탈인간주의적 조직인간을 대상으로 한 통제(Controlled)사회의 반영인 셈이다. 이런 점에서 마틴이 분석한 커튼월 입면도 도상적(Iconic)이지는 않지만 인덱스(Indexical)로서 서양 부르주아 건축의 재현의(representational) 미학적 전통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sup>33)</sup> 그러나 한국의 상업건축의 입면에는 이러한 재현의 미학적 의지가 없다. 한국 상업건축은 입면의 상징성(재현성)의 완전한 해체를 지향하는 점에서 커튼월의 입면과 구별된다.

### (3) 규율되지 않은 입면

벤투리의 사인보드 건축과 커튼월의 모듈러 패턴은, 전자는 사인을 통한 직설적 소통의 방식으로, 후자는 그리드 형태의 극단적 추상화를 통해, 대중소비문화와 대중매체가 지배하는 근대 자본주의적 대도시의 상황에서 시각적 언어의 새로운 균형을 모색함으로써 “건축”의 전통적 위상을 유지하고자 한다.<sup>34)</sup> 이런 점에서 이들은 모두 근대건축의 규율된 입면의 전통 속에 있다. 반면, 한국 상업건축은 오브제로서의 건축의 완전한 해체라는 점에서는 커튼월의 추상적 형식주의를 따르지만, 모듈과 익명적 회로가 표상하는 상징적 입면이 아닌 문자 간판과 상업광고의 부착을 통한 직설적 소통을 추구하는 점에서는 사인보드 건축에 가깝다. 그러나 여기에는 팝 건축에서와 같은 사인의 총체성과 기호학적 파사드에 대한 의지가 없다. 그러므로 근대의 파편성은 입면에 그대로 반영된다. 요컨대, 서구근대건축의 규율된 벽이라면 한국 상업건축의 표면은 규율되지 않은(Undisciplined) 벽이다.

## 4. 한국 상업건축 입면현상과 비서구적 근대성

- 32) 마틴이 분석하는 커튼월은 복합조직은 단순히 도상적 이미지를 넘어서는 무한 반복되는 flexible 유닛 시스템의 (공간적) 매트릭스를 포함한다.
- 33) 마틴의 분석과는 다른 관점에서 미스건축에 대한 타푸리의 분석(근대도시의 시각적 소음 속에서의 침묵)이나 헤이즈의 분석(대량생산된 상품으로서의 건축에 대항하는 아우라(Aura)를 보존하고자 하는 handmade ready made)은 미스건축이 여전히 오브제로서의 건축의 전통에 있음을 주장한다. 이것이 헤이즈와 마틴이 언급하는 미스건축의 이중성이다. 마틴의 분석에서도 커튼월이 오브제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재현의 전통 안에 있음은 마찬가지다. 마틴은 전후 미국상업건축의 입면의 데이터 흐름과 패턴에 의해 구성된 새로운 탈산업, 탈 인간주의적 주체에도 불구하고 totalization, dynamic equilibrium을 유지하고자하는 요구가 있음을 지적한다. (D. Matin, 상계서 p.12)
- 34) 마이클 헤이즈는 현대도시의 시각적 문맥에서 벤투리의 기호학적 입면(Semiotic facade)을 비판한다.(Hays, 상계서) 마틴은 그리드가 이용한 커튼월의 모듈러 시스템은 캐피쉬의 패턴seeing과 연결되어 입면의 미학, 즉, 아우라를 갖는다(Aura in flux)고 분석한다.(Marin, 상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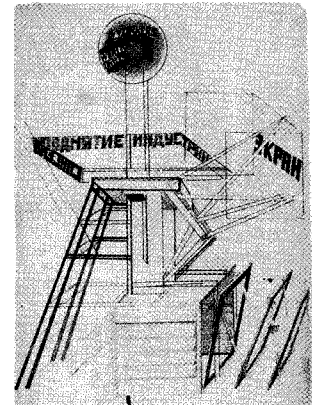
### 4.1. 비서구사회의 근대화와 건축규범의 문제

서구 근대건축의 규율된 입면은 전통적 형태규범이 근대화에 의해 상실되면서 생긴 언어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였다. 즉, 근대건축은 산업화와 기계화의 폭정에 대응하는, 패션의 변화에 저항하는 보상 메커니즘으로서 전통적 형태규범을 대체하는 새로운 언어로서 규율된 입면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건축의 근대성은 타율적 근대화를 겪은, 산업화가 뒷받침되지 않은, 예술적 오브제로서 건축의 재현의 미학적 전통이 없는 비 서구사회에서는 그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근대건축운동의 역사에서 서구부르주아 미학의 전통을 벗어난 사례는 20세기 초 러시아 아방가르드에서 찾아볼 수 있다. 프램톤(K. Frampton)은 1917년 혁명이 후 러시아의 상황을 “전통적 문화시스템이 완전히 약화되고 블랙홀이 발생한 문화적 단절의 상황으로 예기치 않은 사회문화적 복합체가 축적되는 상황”이라고 기술하며 이를 “영도(Zero degree)의 건축”의 상태로 정의했다.<sup>35)</sup> 이러한 상황은 러시아의 구성주의와 생산주의의 시도처럼 부르주아 미학의 전통을 극복하는 새로운 생산미학의 가능성을 연다.<sup>36)</sup> <그림 17, 18>



<그림 17>  
베스닌, 프리우다  
신문사옥, 1922



<그림 18> Klutis, 선전탑  
디자인, 1922

프램톤이 지적한대로 영도의 상황에서는 일상생활의 기능적 물건이 예술의 소재가 되고 예술과 생활은 분리되지 않는다. 자기 완결적 구성에 바탕을 둔 건축개념은 사라지고 사인이자 동시에 생산관계를 반영하는 요소들로 조립된 새로운 건축이 가능해진다. 러시아 아방가르드는 이러한 영도의 건축 상태에서 새로운 건축의 규범을 창조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실패했다. 프램톤은 러시아 아방가르드의 실패를 산업화가 뒷받침되

- 35) Kenneth Frampton, *Industrialization and the Crises in Architecture, In Oppositions*, 1983, p.80
- 36) 마셜 버만은 러시아의 모더니즘에 대해 “러시아 구성주의자는 부르주아 미학적 전통을 벗어나는 형태와 일상의 결합을 추구했다.”고 정의한다. Ward, 상계서

지 못한 사회적 한계와, 대중이 참여하는 공공영역의 약화와 관료화에 의한 지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sup>37)</sup>

영도의 상황에서 새로운 규범의 창조는 결국 공공영역에서의 소통의 문제로 귀결된다. 서구근대사회에서 양식의 혼란과 대중적 소통의 문제는 공공영역에서의 타협과 규율을 통해 해결된다.<sup>38)</sup> 근대화의 과정에서 서구사회는 시민과 이성, 합리성의 이름으로 공공건축의 입면을 규율하고, 시민적 동의를 형성하고자 했다. 전통적 건축규범을 대체하고자한 근대건축의 규율도 마찬가지다. 패션의 일시성에 저항하고 산업화에 의한 소외를 극복하고자하는 근대건축의 입면은 공공영역과 사적영역의 경계에서 새롭게 규율된 벽이다. 그러나 비 서구국가의 타율적 근대화와 공공영역의 부재는 영도의 상황에서 새로운 문화의 생성을 어렵게 한다. 즉, 서구의 문화적 근대성은 산업적, 미학적, 정치적 근대화가 뒷받침되지 않는 비 서구사회에서는 그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 4.2. 한국의 근대화와 상업건축의 입면현상

### (1) 소통의 매체로서의 간판

사회주의 러시아에서 영도의 상황이 가져온 새로운 양식창조를 위한 아방가르드의 시도가 공공영역의 약화와 관료주의에 의해 실패했다면, 한국과 같은, 예술적 오브제로서 건축과 아방가르드의 전통이 없는 비 서구자본주의 사회에서 타율적 근대화가 가져온 전통적 건축규범의 붕괴와 체계적인 파편화과정에서 건축의 입면을 지배한 것은 대중소비상업주의의 소통매체로서 문자광고다. 상업건축의 구축적 유형과 입면의 규율에 대한 전통이 없는 상태에서 상업건축의 입면을 지배하는 문자광고는 대중 문화적 정보매체로서 건축언어의 부재를 대체하며 즉각적 정보를 제공하는 가장 직접적인 소통의 수단이다.<sup>39)</sup> 특히 한국사회의 급속한 자본주의적 도시화과정과 대중소비사회로의 변화, 그리고 미디어 기술의 발전으로 광고는 점점 더 중요하게 되었고, 간판은 도시에서 소통의 지배적 매체가 되었다.

### (2) 공공영역에서 규율의 부재

한국 상업건축의 입면을 지배하는 간판이 규율되지 않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근대화과정에서 공공영역이 성장

하지 못한데 있다. 한국사회는 타율적 근대화과정을 겪으면서 시민계급을 중심으로 한 공공영역이 성숙되지 못했으며 따라서 공공공간과 공공건축의 미적 규범도 정립되지 못했다. 공공 영역에서 합리적 규율의 부재는 공공공간의 사적영역 화를 가능하게 한다.<sup>40)</sup> 따라서 공공공간인 도시가로와 사적영역인 건축공간의 경계로서 상업건축의 표면에는 사적 욕망의 공공적 분출로서 광고가 활성화 된다. 그래서 상업건축의 입면현상이 형성하는 한국의 도시가로는 서구도시의 실내 쇼핑 몰과 같다. 이러한 도시적 실내(Urban Interior)의 개념은 한국과 같이 공공영역과 사적영역의 구분이 모호한 비서구권 도시가로 입면의 독특한 현상이다.

할 포스터(Hal Foster)는 미국의 그라피티(Graffiti)를 공공영역의 규율화된 제도 안에서 표현이 제한된 개인이 공공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sup>41)</sup> 이런 점에서 한국 상업건축의 표피는 그라피티와 비슷하다.<그림 19>



<그림 19> Jean Michel Basquiat, In Italian, 1983  
그라피티



<그림 20> 상업건축 분당 구미동, 2000년  
간판으로 표현

상업건축으로 둘러싸인 한국 도시공간은 개인적 참여자들의 자유로운 발화로 활력이 넘친다. 그래서 한국의 도시에는 그라피티가 없다.<sup>42)</sup> 한국사회에서 공공영역의 합리화된 기술의 부재는 역설적으로 서구근대문명이 내포하는 억압적 성격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sup>43)</sup> 포스트모더니즘의 철학자 리오타르(F. Lyotard)가 현대 상업주의의 이중적 측면을 지적했듯이, 한국 상업건축의 표피에 나타나는 입면현상은 서양근대건축의 규범적 입면에 투사되어 있는 부르주아 공공영역의 억압적

37) Kenneth Frampton, 상계서, pp.76-78

38) 위고(V. Hugo)가 개탄한 건축의 죽음은 문자인쇄술의 발전에 의한 건축의 의사소통기능의 상실에 있다. 대중문화가 지배하는 소비사회에서 건축은 언어로서 전통적인 소통 기능을 상실했다. 근대건축이 새로운 언어를 추구한 것도 건축의 소통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였다.

39) 여기에는 물론 시각적 형태보다 문자를 통한 소통을 위주로 한 아시아의 문화적 전통이 자리하고 있다. 비서구권 국가의 근대건축에 간판이 많은 이유는 이러한 문화적 배경이 있다. 아시아라는 동양의 건축은 2차 프로필이 지배한다고 관찰한 바 있는데 이것은 비서구권 도시상업건축의 일반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동양에서 건축은 배경이고 장치였지 오브제로서의 전통은 약했다. 요시노부 아시하라, 건축의 외부공간, 기문당, 1983, pp.96-98

40) 공공공간의 사적점유는 우리의 도시의 일상화된 모습이다. 이에 관해서는 Cho Myung Rae, "Flexible sociality and the post modernity of Seoul," Korea Journal Vol.39 No.3, 1999 참조. 조명래는 이것을 동아시아국가의 독특한 Flexible sociality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포스트모더니티와 연결시킨다.

41) Hal Foster, "Between Modernism and Media" in Recodings, Bay Press, 1985, pp.48-51

42) 그 이유는 개인적 욕망이 도시의 공간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표출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상업건축의 입면은 이러한 표현의 매개체다.

43) 서구 근대부르주아 사회에서 공공적 규율(Public discipline)에 의한 혁명적 에너지의 상실은 벤야민, 아도르노, 푸코, 들레즈, 리오타르와 같은 학자들에 의해 비판된 바 있다.



규율을 넘어서는 해방적 에너지의 표현이기도 하다.<sup>44)</sup>

## 5. 한국 상업건축의 입면현상과 탈 근대적 표면

한국 상업건축의 입면 입면현상은 사적공간과 공적 공간, 안과 밖의 경계가 모호하며, 문자와 상업적 광고가 지배하는 점에서 보드리야(J. Baudrillard)가 설명하는 탈 근대적 표면과 유사하다. 보드리야에 의하면 탈 근대사회에서 도시의 외연적 확장과 전자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도시공간과 표면문화를 새로운 양상으로 변화시켰다. 현대사회에서 전자통신기술의 발전은 대형 TV 스크린과 같은 미디어와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송출의 내부화로 공공공간과 사적 공간,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소멸시켰다. 탈 근대사회의 전자 의존적 시뮬레이션이 지배하는 표면은 즉각적 외설의 방식으로 공공생활을 독점한다.<sup>45)</sup> 이러한 현대사회를 그는 시뮬레이션에 의한 초 현실(Hyper reality)과 표면의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라고 규정한다.<sup>46)</sup> 그리고 현대사회의 표면문화에서 공공영역과 사적영역(볼거리와 비밀)의 경계는 외설의 방식으로 무너졌다고 진단한다. 전자미디어에 의한 시뮬레이션의 탈 근대적 표면이 가져온 도시공간의 변화는 거리의 소멸과 가축성의 상실이다. 근대도시의 경험은 거리의 보행자와 표면문화의 직접적 관계, 거리에서 스펙터클(구경거리)로의 균중의 참여를 전제로 했지만, 탈 근대사회에서 표피는 더 이상 거리 의존적이지 않게 되었다. 1920년대 근대가 유지했던 공공공간으로서 거리에서의 시각적 경험과 광고의 충격은 사라지고 서구근대 소비사회의 현장 스펙터클은 탈 근대적 표면의 미디어 이벤트에 의해 대체되었다.<sup>47)</sup> 여기서는 전통적인 거리의 스펙터클이 아닌 외설과 같은 소통의 즉각적 가시성이 있을 뿐이다.<sup>48)</sup>

44) "Forward" by F. Jameson in J. F. Lyotard, Postmodern Conditi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9 참조

45) 외설은 볼거리(스펙터클)가 없는 곳에서 시작한다. 모든 것이 투명하고 즉각적 가시성을 가질 때 더 이상 (스펙터클의 전제인) 소외는 없다. 이것이 근대의 스펙터클과 포스트모던의 외설의 차이이다.(Baudrillard, Ecstasy of communication, p.130)

46) 표면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뮬레이션은 현실보다 더 현실적 경험을 구성한다. 시뮬레이션 사회에서는 오리지널이 없기 때문에 깊이와 그림자, 안 밖의 구분이 없다. 보드리야는 "The Orders of Simulacra"에서 다음과 같이 쓴다. "the cool universe of digitality has absorbed the world of metaphor or metonymy. The principle of simulation wins out over the reality principle just as over the principle of pleasure"(Simulations, p.152)

47) Ward는 바이마르 표면을 가로 의존적 표면으로 정의하고 이를 탈 근대적 표피의 전자 의존적 시뮬레이션과 구분했다. 바이마르의 가로 의존적 광고는 탈근대에서 추상공간으로 전화되었다. "while Weimar oscillated over the tension filled difference between depth and surface, dark and light, stasis and tempo. real text and advertizing text, post modern surface no longer has such point to argue.(Ward, 상계서, p.141)

의미 없이 떠도는 사인의 연속체로 구성된 유동적 면이라는 점에서 한국 상업건축의 표피는 보드리야가 말하는 모든 문화적 의미가 붕괴되는 미디어 율과 유사하다. 그러나 한국 상업건축은 직접적인 가로에서의 경험과 소통이 가능한 현장 스펙터클이라는 점에서 탈 근대적 표피와 같이 현상이 없는 즉각적인 외설의 형태는 아니다. 한국 상업건축에는 근대 상업적 모더니즘이 갖고 있던 긴장과 충격이 유지되는 공공공간으로서 거리가 존재한다. 공과 사, 안과 밖의 구분이 모호하지만, 한국 상업건축의 입면은 공적, 사적영역의 경계에서 개인적 발화의 자유가 있는 공공공간의 성격을 유지한다. 다시 말해서 한국 상업건축의 입면현상은 공공공간에서 개인적 발화가 직설적으로 표출된다는 점에서 공공공간의 소멸을 말하는 서구의 탈 근대적 표피와 구별된다. 서구도시에서는 공적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에서 규율된 근대의 표면이 모든 것을 흡수하는 탈 근대적 표면으로 변화면서 사적공간과 공적공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공공공간이 상실되었지만, 공공영역과 사적영역의 경계가 모호하고 공공영역의 규율이 없는 한국 상업건축의 표면은 개인과 표면의 직접적 접촉이 이루어지는 공공공간으로 남아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 상업건축의 규율되지 않은 입면은 서구의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패러다임을 벗어나는 비서구적 근대건축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 6. 결론

한국 상업건축의 입면을 덮는 상업적 표피는 흔히 건축의 본질적 입면과 무관한 장식적 요소이며 제거되어야 할 대상으로 비판받는다. 여기에는 자율적 순수입면이라는 서구 근대건축의 미학적 이데올로기가 내재한다. 그러나 서구 근대건축의 순수입면은 장식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건축표면을 합리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자본주의적 소통에 더 빠르게 적용될 수 있게 한 장식적 표면에 지나지 않는다. 1920-30년대 유럽의 상업적 근대건축에서 순수입면과 상업광고의 공존은 이러한 현상을 대변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 상업건축의 입면현상은 서구의 상업적 모더니즘의 전통 속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서구 근대 아방가르드는 상업건축의 광고를 구축적 입면의 일부로 통합하려고 한 반면, 한국 상업건축은 상업적 간판과 건축입면의 통합을 위한 의지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인과 건축의 분리라는 점에서 보면 한국 상업건축은

48) 포스트모던사회의 광고는 깊이가 없고 즉각적이며 즉시 망각된다. 광고는 피상적 형태의 승리이며 모든 의미작용의 최소공약수이며 의미의 영도이다. 이것이 보드리야가 말하는 현대사회에서 소통의 무아경이다. 우리는 소통의 무아경에서 산다. 이 무아경은 외설이다.(Baudrillard, Ecstasy of communication)

벤투리가 주장한 탈 근대적 장식된 헛간과 유사하지만, 상징적 오브제로서 건축 파사드의 총체성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다르다. 또, 건축의 성격을 표상하는 파사드의 전통이 없이 수많은 사인의 연속체로 구성된 유동적 면이라는 점에서 한국 상업건축의 입면은 마틴이 분석할 서구의 커튼월과 유사하지만, 입면의 상징성이 완전히 해체되었다는 점에서 역시 차이가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 상업건축의 표면은 서구의 근대 또는 탈근대의 규율된 입면과 구별되며, 사적영역과 공적 영역사이에서 규율되지 않은(Undisciplined) 입면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상업건축의 입면현상은 사적공간과 공적공간, 안팎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보들리야가 설명하는 탈 근대적 표면과도 유사하다. 하지만 서구 현대사회에서 탈 근대적 표면이 등장하면서 공공영역과 사적영역(불거리와 비밀)의 경계가 무너지고 공공공간이 소멸되어 가는 반면, 한국 상업건축의 규율되지 않은 입면은 개인과 표면사이에 접촉이 일어나고 긴장이 작용하는 영역으로서 공공공간의 성격을 유지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 상업건축의 근대성은 서구 근대와 탈근대의 패러다임을 모두 벗어난다.

현대사회에서 표면의 광고가 모든 것을 흡수하게 된 현상을 근대와 탈근대의 구별로 삼는다면, 한국 상업건축의 표면현상은 서구의 근대와 탈근대의 미학적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건축적 현상이며, 이것은 공공영역과 사적영역의 명확한 구분이 없는 비서구적 또는 한국적 근대성의 특징적 표현이다. 따라서 한국 상업건축을 서구 근대건축의 순수입면의 이데올로기에 입각하여 비판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간판으로 덮힌 한국 상업건축의 입면에 드러나는 상업적 스펙터클은, 단순히 건축의 본질을 덮는 상업주의적 거짓의식의 표현이라는 편견을 벗어나, 근대(순수형태, 깊이추구, 통합양식, 가로 의존적)와 탈근대(유동성, 표피적, 파편적, 시뮬레이션)의 이분법을 넘는 비서구 사회의 건축적 근대성의 현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 상업건축의 표면을 지배하는 상업광고는 한국 상업건축의 시각적 근대성의 일부이며, 이러한 장식적 표면에 숨겨진 건축의 입면은 오히려 공허하다. 상업건축의 본질은 이면의 파사드가 아니라 표면 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 상업건축의 표면현상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간판정비를 통해 공허한 입면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업건축의 표면현상을 어떻게 표면의 기술로 건축의 구축적 형태와 통합할 것인가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 상업건축의 입면현상은 디자인을 통한 건축화의 대상으로 남아있다.

## 참고문헌

1. K. Frampton, "Industrialization and the Crises in Architecture" in *Oppositions*, 1983
2. *Resurfacing Modernism*, *Perspecta* 32, 2001
3. Mark Wigley, "White out: Fashioning the Modern" in *Architecture in Fashion*,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4.
4. Colin Rowe, "Chicago Frame" in *The Mathematics of the Ideal Villas and other Essays*, MIT Press, 1982
5. Reinhold Martin, *Organizational Complex, Architecture Media and Corporate space*, the MIT press, 2003
6. Janet Ward, *Weimar Surfac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1
7. Hal Foster, "Between Modernism and Mass Media" in *Recodings, Art, Spectacle, Cultural Politics*, Bay Press, 1985
8. J. Baudrillard, "Ecstasy of communication" in Hal Foster, *the Anti Aesthetic*, Bay Press, 1983
9. J. F. Lyotard, *Postmodern Conditi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9
10. Cho, Myung Rae, *Flexible sociality and the post modernity of Seoul*, *Korea Journal* Vol.39 No.3, 1999
11. 서울시 옥외광고물 관리 기본방안 연구보고서, 2000

[논문접수 : 2011. 10. 31]  
 [1차 심사 : 2011. 11. 18]  
 [게재확정 : 2011. 12. 09]